

# 속년사회와 C & C



金 貞 欽  
高麗大 名譽教授/理博

## 달려오는 3K 시대

3K시대가 달려오고 있다. 3K시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령화사회·고도 정보화사회·국제화시대의 우리나라 발음의 머리글자를 따서(필자가)만든 말이다.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생활환경의 풍요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도 어느새 70세가 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생칠십고래회(두보의 곡강시의 한 구절)란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누구나가 다 적어도 70세까지는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소위 노년(보통의 경우 65세 이상을 뜻함)총인구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1993년 현재는 5~6%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이 비율은 20%도 더 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가까운 일본이 그렇다. 2차대전 직후(1950년)만해도 몇%에 불과했던 이 비율이 40년이 지난 1992년 현재 16%로 올라갔고, 서기 2010년에는 25%, 2020년에는 27~28%로 올라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 1/4이상이 이런 노년층으로 구성이 된다. 그 결과 노년층은 소수자가 아니라 청장년층에 이은 다수자가 된다. 그 결과 사회전체가 이 노년층에 의해 커다란 변화를 받게 된다.

### 「Mellos Society(속년사회)구상」방문

그 결과 日本에서는 요새 한창 멜로구 소사이어티(Mellos Society) 구상이란 것을 놓고 야단법석이다. 얼마 안 있어 다가올 이 고령화시대(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25% 선을 넘은 시대)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 日本사회의 중견층으로서 한창 활약하고 있는 40대가 20년 후에는 60대의 노년층이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20년 후인 2000년경에는 그 인구비율이 전체의 25%를 넘게 되어 노인복지문제를 놓고 심각한 사 문제가 전개된다는 것이다.

즉 그때가 되면 노인이란, 극소수의 소수파(Minority)가 아닌 다수파(Majority)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이라던가 노년층이란 말도 적당치 않다고 해서 숙년시대, 숙년사회, 원숙사회, 성숙사회 등등의 새로운 표현을 쓰고 있고, 더 적당하게는 영어로 Mellow Society, Mature Society란 말을 빌려쓰고 있기도 한다.

예컨대 日本의 통산성 산하에는 재단법인 퍼스널정보환경협회가 설립되어 있고, 그 산하에 Mellow Society Forum(숙년사회구성)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중에 있다.

그래서 필자도 이 단체의 초대를 받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이 단체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이 여행은 이 외에도 日本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한일PC통신국제회의에의 참가도 여행목적의 하나로 되어 있었다).

## 멜로우 소사이어티 구상의 내용

멜로우 소사이어티의 구상(Mellow Society Forum 또는 Mellow Society Concept)이 주제로 삼고 있는 멜로우 소사이어티란 무엇인가?

멜로우 소사이어티란 원숙한 고령자(Mellow 세대, 보통은 65세 이상의 세대)가 충실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고 한다. 日本의 사회구조마저도 바꾸게 될 고령화경향과 고도정보화 흐름을 조화시킴으로써,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실현시키고, 고령자의 높고 깊은 지식과 식견을 살림으로써, 풍요롭고 윤택한 활력있는 사회를 구성해 나가자는 것이 Mellow Society 구성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숙년층(노인층)이 중년층 이상으로 활력있게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다가올 3K 시대(고령화사회·고도정보화사회·국제화사회)를 더욱 더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 숙년사회구상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시스템

이런 미래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오랜 경험을 통해 취득한 지혜나 노하우라는 귀중한 자산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에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바로 개인수준에까지 깊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활용이다. 즉 고령자가 쉽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C&C(Computer and Communication)시스템의 구축이 급선무가 된다.

즉 이 멜로우 소사이어티 구상에서는 종래의 노인대학이라 해서 노인을 약한자, 무력화된 병약자로 취급하고, 그 후생복지에만 신경을 써왔던 대책과는 달리, 노인들을 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갖는 능력(경험·지혜·노하우 등)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대책이라 해서 종래와 같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그리고 어느쪽인가 하면 소극적이고 소비적인 대책이 아니라, 노령층, 즉 숙년층에게 그들에게 알맞는 활동분야를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이 갖는 밝고 적극적인 생산적인 삶의 바탕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숙년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갖가지 시스템을 짜주자는 것이다.

## PC통신의 활용

예컨대 고도정보화시대 그리고 국제화시대이기도 한 이런 미래사회(고령화시대)에서는 통신인프라스트럭처(통신Infrastructure)가 잘 구축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인프라스트럭처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유지시키고 그 발전을 도와주기 위한 기반 구조로서 상하수도·전기 예컨대 운수·통

신·도로·항만·교육·위생시설 등등을 뜻한다. 이중에서는 특히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통신인프라스트럭처로서는 통신위성·통신회선·통신센터·데이터베이스 등등이 있다.)그 결과 누구나 손쉽게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통신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 종합정보통신망)등을 써서 세계의 어느 누구하고도 PC나 전화기(아마도 화상전화)를 통해 손쉽게 그리고 싼 통화료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동호인끼리 또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전문지식을 소개받거나(데이터 베이스의 소재처), 또는 직접 주고 받을 수가 있다.

또 이런 통신망을 쓰면, 행동에 제약을 받는 신체장애자도 안방에 앉은 채 세계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해져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다. 물론 취미생활을 위해 PC통신 바둑도 둘 수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 이하 VR이라 씀 가상현실감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적세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시스템)시스템을 이용해서 갖가지 경험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헬리콥터여행에 관한 VR(비추얼 리얼리티)의 소프트웨어를 쓰면, 안방에 앉은 채 「헬리콥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상공을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이런 VR시스템을 쓰면 안방에 앉은 채 뜻이 맞는 친구를 전화회선에 불러내서 VR 골프 게임도 즐길 수 있다.

### 볼런티어 적립제도의 이용

또 사회봉사의 볼런티어(Volunteer)적립제도란 것도 있다. 젊었을 때 시간이 나는대로 무료로 사회봉사를 해 두자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멜로우 커뮤니티의 센터(Mellow Community Center 숙년층에 대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배치된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적립이 된다. 그러면 이 다음 그 자신이 뇌일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던가, 또는 기

타의 신체장애를 입었을 때 적립된 봉사시간만큼 공짜로 무료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사회봉사 볼런티어 적립제도는 젊었을 때 뿐만 아니라 숙년이된 후에도 시간만 있다면, 다른 숙년(고령자)를 위해 봉사를 할 수도 있다. 이리하여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이 멜로우 소사이어티 구성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통신대학도 다닐 수 있고, 카운셀링도 받을 수 있다.

또 통신시스템을 활용하면 안방에 앉은 채 통신대학도 다닐 수 있고, 특정분야의 강좌도 들을 수 있다. 높은 교양을 위해 고도의 교양 강좌도 신청할 수가 있고, 카운셀러(Counselor)창구를 통해 인생상담, 재취업,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도 받을 수가 있다.

인생상담이나 재취업 알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카운셀러 등록을 해두면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재취업을 위한 노하우를 역으로 전수해 줄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가 오랜기간을 통해 축적해둔 노하우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지혜를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

또 미래사회에서는 노인층을 위해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제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 워크 셰어링이란 같은 직장에서 많은 같은 일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갈라, 업무상 문서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같은 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 하는 시스템이다. 노년이 되어 하루 8시간의 업무가 힘이 든 경우 오전4시간과 오후 4시간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는 12시간씩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런 워크 셰어링을 하고 있다.

C&C(Computer and Communication)의 발

달로 이런 워크 세어링은 손쉬운 것이 된다. 즉 모든 문서·데이터를 PC 또는 회사내 대형컴퓨터의 두 사람용 사서함에 축적해둠으로서 오전반과 오후반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상대방이 오후 또는 오전중에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서류를 작성했으며, 상사와 어떤 논의를 주고 받았는가를 환하게 알 수가 있다.

Mellow Society구상의 골자를 소개한 것이지만, 이 고령화시대는 약 20년의 시차는 있겠지만, 21세기 초에는 우리나라에도 도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도 3K시대에 알맞게 고도 정보화시대의 C&C(컴퓨터와 통신의 융합된 기술시스템)을 써서 다가올 고령화 시대 또는 숙년시대에 대비해야만 한다.

### 곧 다가올 한국의 3K시대

이상은 대략 일본에서 현재 구상중에 있는

#### ITC 및 미국통상법 337조 관련 국제 특허 세미나 개최 안내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특허분쟁이 반발하고 있으나 원천기술이 적고 특허 전담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이러한 압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외국의 유명 특허전문 LAW FIRM의 변호사들을 초청해 국제 특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무역제재 차원에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직접적인 규제를 취할 수 있는 ITC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미국통상법 337조의 해석, ITC소송 및 대응절차, 구제방안 등에 대한 강의 등을 통해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및 무역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허세미나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1993. 6. 17(목) 09:00~18:00  
나.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  
다. 추진기관

- 주최 : 본회 및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
- 후원 : 상공부,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발명특허협회

라. 강사

- Finnegan Henderson Law Firm 소속 특허전문 변호사 4명
- 신신희동법률사무소 선우찬호 특허전문 미국변호사(통역겸)

마. 참가비 : ₩ 30,000(교재 및 중식비 포함)  
※ 온라인 취급

- 계좌번호 : 470301-91-208907(주택은행 역삼동지점)

- 예 금 주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바. 문의처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정보산업과  
(TEL : 553-0940/7, FAX : 555-6195, 563-7339, 563-7371)